

지역 소식통

부안 백산면 지사보협
정기회의 개최

부안군 백산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공공위원장 나용성 백 산면장 민간위원장 정재원)는 14일 백산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보금잔 액 보고 및 향후 사업선행, 대 상자 발굴 방안 기부문화 활성화 및 복지지원자 발굴, 연계 활 성화 방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표평가 설명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발굴 및 적극 지원 및 다양한 복지지원사업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1인 1계좌 갖기 및 적극 홍보를 통 한 정기기부를 다짐하며 솔선 수범의 자세를 보였다.

정재원 민간 위원장은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 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다”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및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나눔 문화 정착을 기원한다”고 말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보건소,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간담회

고창군보건소는 지난 12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협력을 위해 상반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고창군 장애인에게 보건·복지·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사례관 리, 재활운동실 운영 등 하반기 사업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보건·복 지·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 애인에게 유익적인 서비스 제 공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치권·전북도 공조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5일 전북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 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와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 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 예산 확보 방안과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찾는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 단계 중점 관리사업(△정읍 첨단의료복합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중부권·영 남권·호남권을 잇는 국가 비이오헬스 삼각벨트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정읍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총사업비 200억원, 23년도 국비 요구액 5억원이 투입되는 농축산용 미 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태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가 최근 3년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백신 전용 안정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일 공동방제 활동을 펼쳤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과수 피해 돌발해충·공동방제 ‘총력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일 공동방제 활동을 펼쳤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고온으로 인해 신립 인근 과수 포장에 미국 선너벌레와 갈색날개미미충 등의 돌발해충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과와 감, 복숭아, 배 등 신립과 연결하는 과수원에 심각한 흡즙 피해와 그을음병 등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정읍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선) 인근 산립 2ha

에 대해 신립노지과와 협업해 신속한 공동방제를 추진했다.

또 돌발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 배, 복숭아 등 8개 작목 256ha 과수농 가에 공동방제 약제도 공급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까지 발생이 많았

던 신립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입암면, 응동면, 철보면 등 6개 지역 78ha에 끈끈이트랩을 지원해 신립기를 앞둔 성충을 포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돌발해충이 성충기로 앞두고 있어 약충기(어린 벌레 시기) 방제에 총력을 다해 이룬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과수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은 5월 중·하순에 무화해 7~8월에 성충이 되고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알을 낳고 죽게 된다.

약충은 줄기에 불어 수액을 흡즙하고, 흰색 밀납 물질을 분비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또 성충은 1년생 어린 가지 속에 알을 낳아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열매가 달릴 가능성이 손상되면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여름 복날엔 복분자 도시락’ 간편식 내놨다

고창군, CU와 시리즈 5종 구성



‘대한민국 복분자 성지’ 전북 고창군이 초복을 앞두고 편의점 CU와 함께 고창복분자 품질의 원재료를 인정으로 공급받기 위해 고창상회팜푸드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CU에서 14일부터 출시된 간편식 시리즈는 도시락, 주먹밥,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총 5종으로 구성됐다. 100% 고창 복분자 원액이 첨가됐다.

복분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

에 좋을 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기력 저하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지역 프리미엄 원재료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편의점 간편식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를 활용해 출시한 이번 간편식 시리즈는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생협력 CU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고창 농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18억 원 투입 10월 준공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업 경영비 절감, 농업 기계화를 위해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한다.

시는 영원면 후지리 1001-4번지 일대에 사업소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 준비를 최종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부지역(고부, 영원, 이령, 덕천면)의 농업인들은 인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어 농기계 임대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농업인의 불편

을 해소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8억원(국비 6, 시비 12억원)을 투입, 서부 임대사업소 신축을 추진한다.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부지면적 5,990㎡, 창고면적 727㎡에 총 50여 종 160여 대의 임대 농기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주요 임대 기종은 경운기와 굴삭기, 관리기 등 농작물용 농기계와 땅掘 작물 수확기 등 농가 이용 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비를 갖출 예정으로 많은 농업인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본소·북부·서남권·동부 총 4개 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7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101종 1,460대의 농기계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김수일·김순조 부부 장학금 500만원 기탁

부부

을

김

수

일

김

순

조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